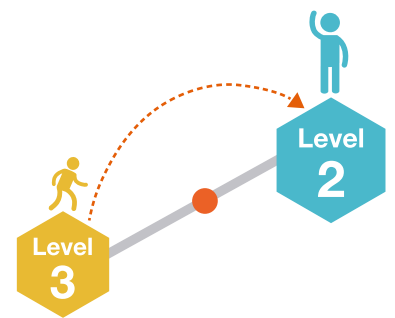


2015년 전라북도 성평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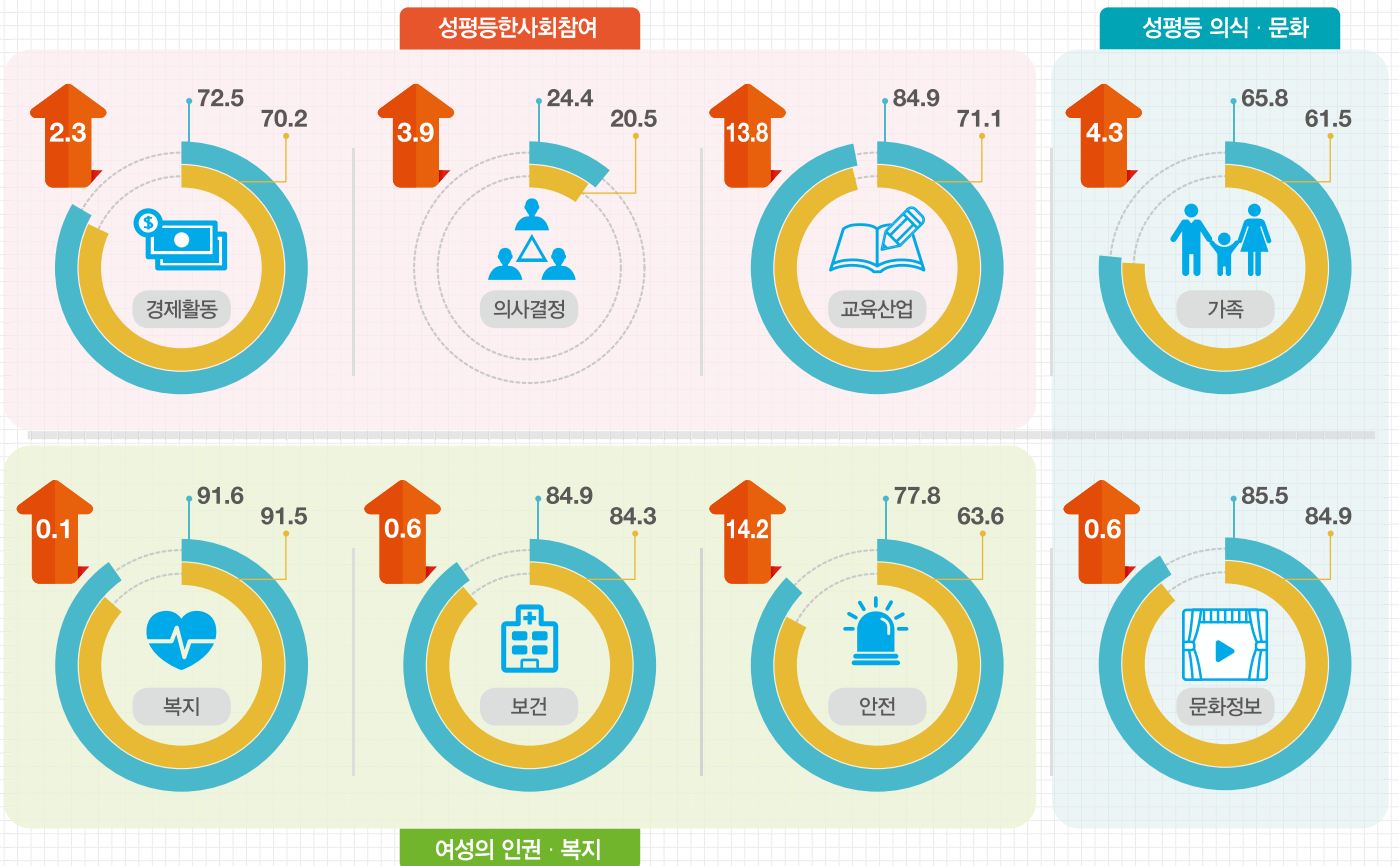
- 안전 분야 전국 시·도 12위서 2위로 '굉충'

1. 전라북도 여성은 평등한가?

전라북도는 2014년 '성평등 중하위지역(Level-3)'에서
 2015년 '성평등 중상위지역(Level-2)'으로 상승함
 2015년 성평등지수는 2014년 대비 8개 분야 모두 상승하고
 안전분야와 복지분야는 각각 63.6점에서 77.8점으로, 71.1점에서 84.9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전북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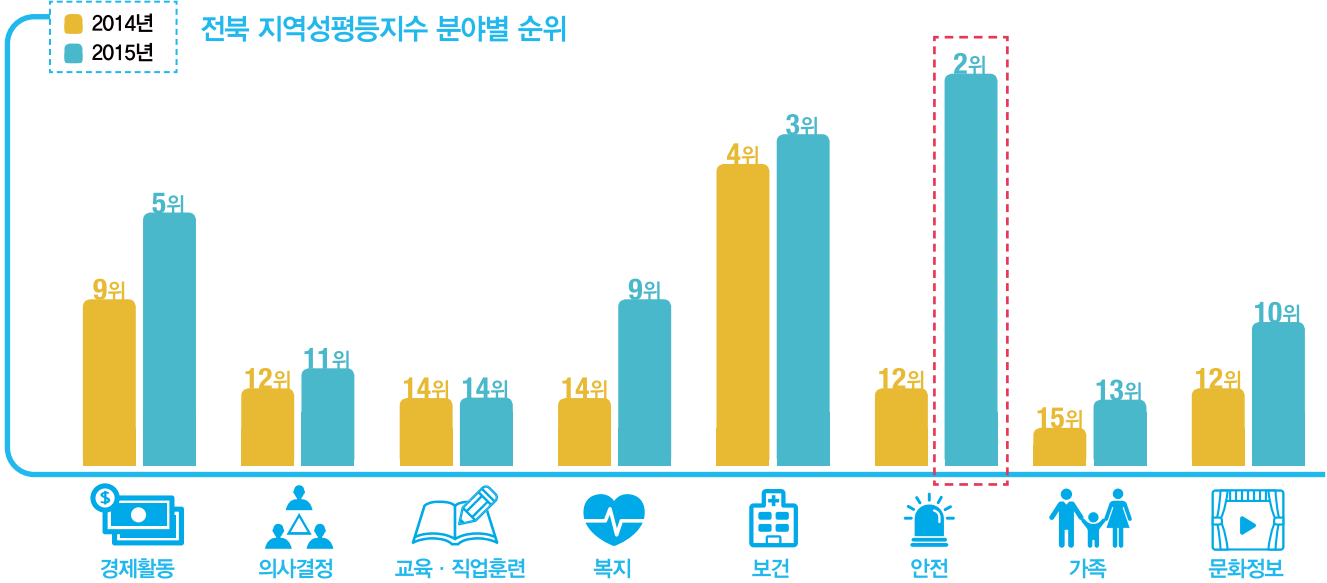


2. 전북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순위

안전 분야는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에서 2위로 상위권으로 진입함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이 큰 폭으로 개선됨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가족 분야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



안전분야 12위에서 **2위로 상승**



3. 전북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 변화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12.6점 높은 77.8점으로 높게 나타남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손꼽힘
 안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식 향상과 노력의 결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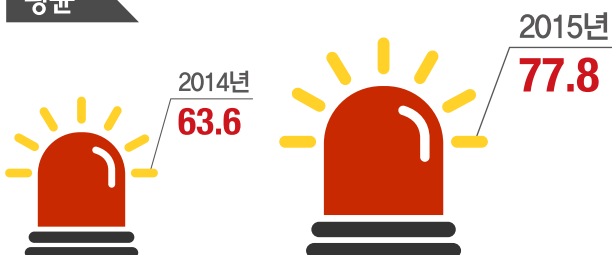
사회안전 인식 성비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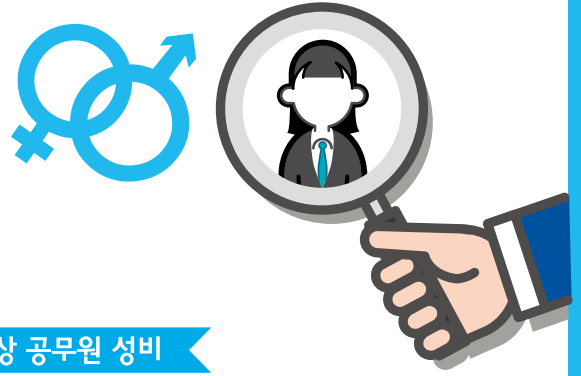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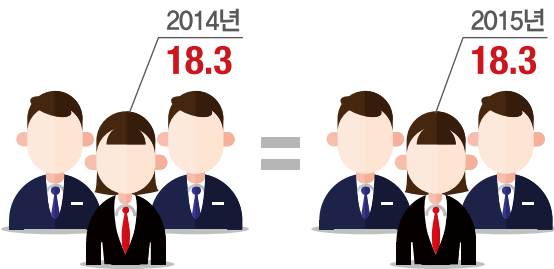


4. 전북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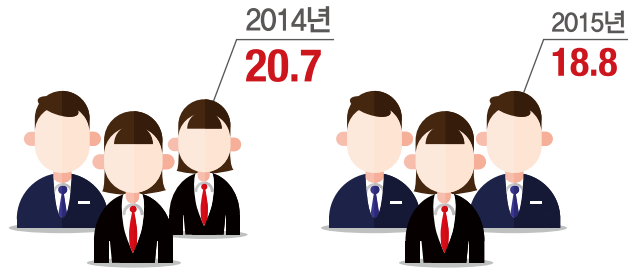
2015년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4년 대비 3.9점 향상됨
 2015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2014년 12.5점에서 28.4점으로 상승한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7점에서 18.8점으로 소폭 감소함
 여성공무원의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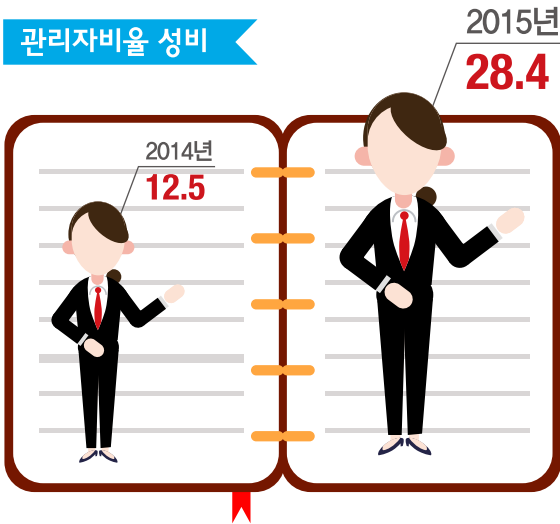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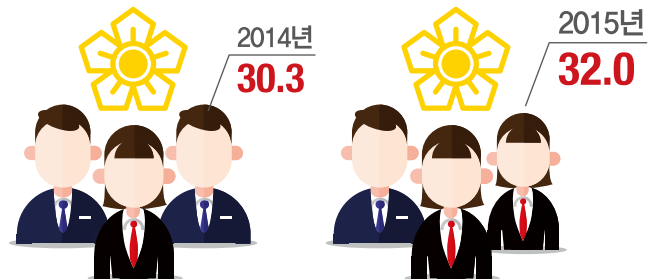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



지역성평등지수(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RGEI)



전국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실태와 개선정도 파악과 지역 여성정책 점검을 위해 매년 발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및 문화정보 8개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0점(완전불평등)에서 100점(완전평등)으로 제시
 2015년 전북 성평등 실태는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함

5. '성평등한 전라북도'를 위한 방안

- '성평등한 전라북도'를 위한 방안 미래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세부지표와 사회 구조적 측면 및 인식·홍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지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 개인 등과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 전북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는 타 시·도와 비교되는 자료로 타 지자체의 지표 관리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함
- 성평등수준 향상 및 양성평등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 도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전북 성평등수준 제고 및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노력과 함께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및 상호협력 바탕으로 한 균등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는 특정 정책 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꾸준히 변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남성을 대상으로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등이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 :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2015년 기준)

